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하천변, 공원, 일반도로 등 다양한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왔으나, 현행 조례는 도로 인프라 중심의 설치 기준에 머물러 시민 생활권과 여가·경관을 고려한 종합적인 자전

거 인프라 조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 조례 개정 당시 신설된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은 도시개발 중심의 교통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천·공원형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혼재 구간의 안전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하천·공원 등 녹지 공간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과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동선 분리 설계 원칙을 신설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